

## 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 거실 (LIVING AREA)

趙 聖 烈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 □ 거실의 새로운 개념

집은 인간에게 최고의 휴식처이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은 여러 성격을 띠고 있으나 기본적인 활력소의 역할은 보금자리인 집이라는 요소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에서 거실은 그 어느 공간보다 휴식과 안락의 장소로 적합한 곳이다.

즉 거실은 주거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을 기능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볼 때 수면을 취하는 공간, 식생활을 위한 공간,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 일을 하는 작업공간, 손님을 위한 응접공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크게는 침실공간과 일상생활공간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실중심의 주거취향은 가족중심의 단란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거실은 가족 전체를 위한 융통성있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실로서의 거실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거실은 가족 단란의 장소로서, 휴식과 안락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독서를 하고 취미생활을 누리며 때로는 식사도 하는 다목적의 장소로서 생각하게끔 된 것이다.

거실은 주택에서 차츰 중요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유 부분이며 통로를 겸한 개방공간인 거

실에서 독립성이 있는 가장 안정된 생활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실은 주택면적의 20%~30%를 차지해 왔으나 차츰 그 면적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물론 거실의 면적을 책정할 때는 주택의 규모라든지 가구계획, 건축주의 주거취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책정하게 된다. 주택에서 거실의 면적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경향은 현대인의 주거습성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실의 기능과 비중을 생각할때 당연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 □ 거실의 독립성

거실의 배치는 주택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게 된다. 가족의 단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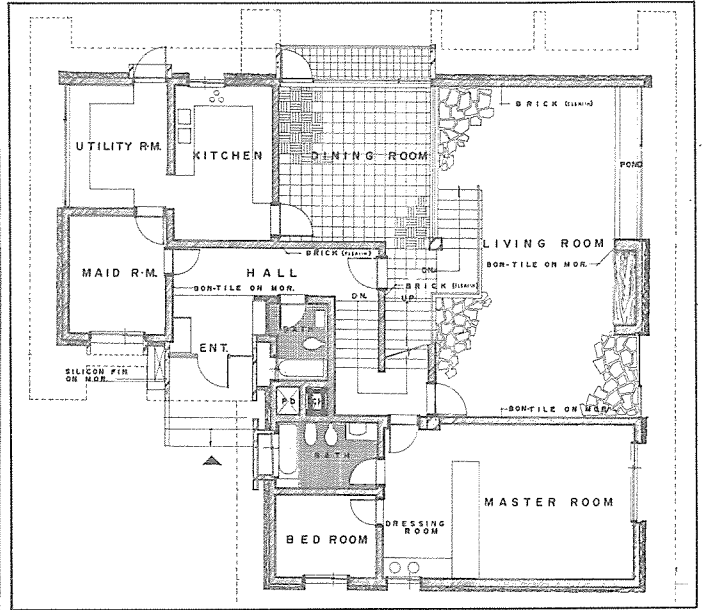
소, 휴식, 접객, 사교, 독서, 가사, 식사 등 다목적 기능을 가지며 일일 사용 시간이 제일 긴 거실공간의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거실의 제 기능을 다 발휘하여 편리하고도 능률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실은 침실 부분과 격리된 주거부분의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서 식

### □ 거실의 기능

대규모의 주택이나 특별한 경우에 손님접대를 위한 방이 따로 계획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주택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은 거실이다. 응접공간으로서의 거실은 특히 실내장식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거실의 인상으로 그 집

연출의 수준을 넘어서 전시품에 따른 진열 계획을 가지고 꾸며져야 한다. 감상자가 진열효과를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실 같은 거실은 음악감상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설비가 된 곳을 말한다. 오디오 시스템 갖추고 방음, 흡음효과가 나는 내장시설을 하여 음악적으로 실내연



당과 면하게 되며 현관에 가까운 독립 통로와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현관, 복도, 계단실이 한곳에 집결되고 그곳이 분기점이 되어 거실통로와 침실통로가 각각 갈라지도록 배치함으로써 거실의 독립성, 안락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거실은 통로공간이 아닌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 배치되어야 한다. 흔히 거실을 주택의 중심부에 두면서 거실의 여러 벽에 통로와 문을 두어 거실을 로타리화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주택에서는 거실을 독립 공간화시키는 데에 착안하여야 한다. 그렇다고해서 거실이 다른 부분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될 수는 없다. 짧은 동선으로서 실내의 다른 곳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거실과 현관, 계단실, 복도공간 등과는 거리가 서로 가까우면서도 서로 격리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실이 통로화되는 것은 배제해야 하며 주택에서 가장 훌륭한 방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을 측정하게 되고 주인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실에 들어온 손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한다.

거실의 주택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해서 서재의 기능을 겸용시키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패턴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채광이 잘 드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거실은 독서를 하기에 적합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서재를 겸한 거실은 벽가구를 이용한 책의 진열을 하여 독서의 편리를 도모한다. 이러한 거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안정감을 주는 실내여건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거실은 일상생활을 가장 진지하게 누리는 장소로서 취미생활 공간의 기능을 가진 곳이다. 취미생활의 기능을 살린 거실은 그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집품의 진열에 착안한 거실이고 둘째는 음악감상 장소로 적합하게 시설한 거실이며 마지막으로 취미생활 작업장의 기능을 갖게 한 거실이다.

전시장으로서의 거실은 일상적 실내

출을 하고 있는 거실이다. 작업장으로의 거실은 조각, 공예, 공작 등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간이시설을 거실에 결들인 경우를 말한다. 거실은 실내공간 계획에 따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며질 수 있는 것이다.

### □ 거실의 실내연출

휴식공간으로서의 거실은 딱딱한 곳이 아닌 부드럽고 감미로운 요소로 채워진 공간이어야 한다. 쿠션이 와닿는 소파와 고요히 흐르는 음악은 거실에서 휴식을 즐기게 해주는 기본적인 것이다. 실내의 배경에 깔린 시청각적인 요소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휴식과 안락을 누리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다.

거실의 가구는 크게 소파세트와 벽선반 가구의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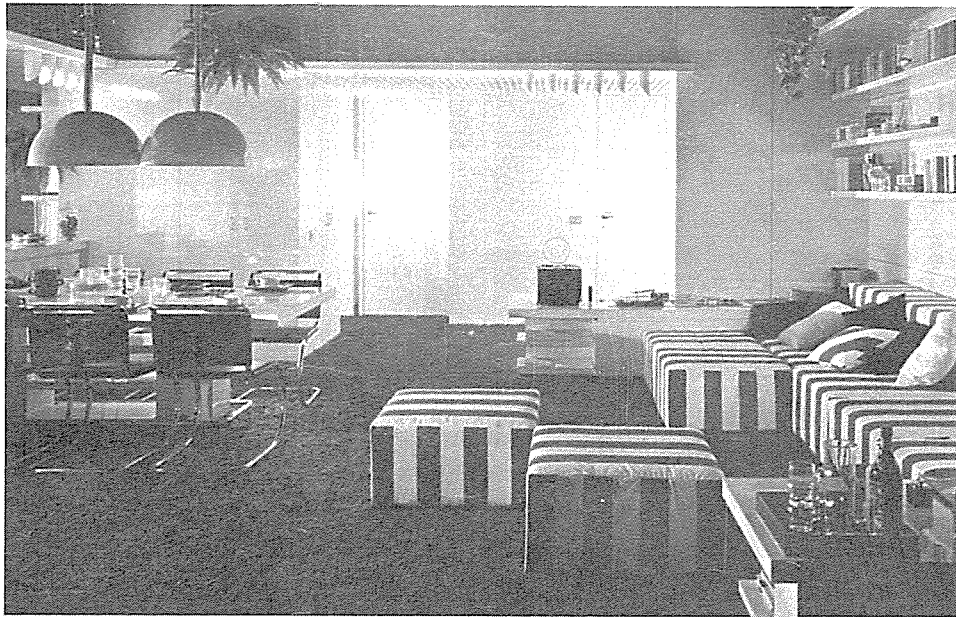
소파세트는 안락, 휴식을 위한 것이며 벽선반 가구는 살림도구, 수집품들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구의 설계에 따라 소파의자는 독서, 업무의 기능을 겸할 수 있으며 선반가구, 오디오 시스템과 서가, 파일캐비

넬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파세트류와 컴비네이션 셸브만으로 족한 것이다. 그 외의 가구들은 거실의 주가구를 배치한 후에 거실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곁들여져야 한다. 거실의 소파세트는 가족들이 포근하게 둘러앉을 수 있도록 가족수와 가족의 취향에 따른 모양과 크

밝고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하는 데 착안해야 한다. 거실의 전체조명은 대개 선반벽을 향한 간접조명으로 해야 아늑한 분위기가 생기게 되며 소파의 탁자에 떨어지는 팬던트, 거실의 코너에 배치되는 스탠트는 장식 조명화하는 것이 좋다. 장식조명이나 국부조명은 자체의 디자인이 재미있고 우수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공간요소라 할 수 있다. 전망창은 창살이 없는 고정창이 이상적이다. 전망부분의 창은 보통 고정시키며 개폐식 창은 한면으로 독립시켜 실내의 전망을 살린다.

창의 위치, 창의 디자인으로 전망



기의 결정이 필요하다.

소파세트는 휴식, 음악감상, 독서 등을 하기에 알맞은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탁자의 높이는 50cm~65cm정도가 적당하며 의자의 높이는 방석높이가 40cm미만의 것이어야 앉았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거실의 백선반 가구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 장식품, 수집품, 취미용품 등을 정리, 진열할 수 있도록 벽에 배치되는 다목적 가구이다. 거실의 선반장은 일반적으로 거실의 한쪽 벽에 채워서 설치되는 장식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거실의 모든 것들이 그 장식 선반장에 집중되어 정리장이 되게 한다. 거실의 선반장은 소파세트나 탁자 등 거실의 다른 가구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료와 디자인을 통일감있게 계획해야 한다. 선반벽 전체를 한눈으로 보았을 경우의 구도, 균형, 진열품의 색상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실내가 더욱 살아 보인다. 선반가구의 자체의 디자인에 못지않게 진열품의 효과적인 배치가 중요한 것이다.

거실에서 조명효과는 방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한다. 거실의 조명장치는

한 것이어야 한다. 작은 공간에서도 조명장치는 몇 단계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탁자위의 팬던트는 밝게하여 화려한 분위기를 만들고 주위의 국부조명을 어둡게 하면 차분한 실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실조명의 특징은 천정과 벽의 관계에서 이루게 하는 간접조명과 장식물에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조명은 굴절 조명화하고 장식조명은 장식적 요소를 돋보이게 하여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다.

주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실의 색조는 가족전체의 취향을 살린 보편성있는 색을 선택하여야 한다. 거실은 가족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색채계획에 있어 밝고 아늑하며 안정감이 있고 싫증나지 않는 배색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옅은 무채색, 밝은 계통의 색은 실내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다.

거실은 전망이 있는 실내, 좋은 전망이 있는 실내로 계획되어야 한다. 실내공간에서 인식되는 전망이란 창을 통해 펼쳐지는 옥외공간의 경관을

을 살린 실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거실을 꾸민다. 치장한다, 진열한다 하는 등의 일은 인간의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되어지는 일이다. 거실의 기능을 모두 해결한 평면배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쓸모도 있고 정이 드는 실내가 되도록 하려면 감성적 요소를 갖춘 인테리어적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주인의 취미와 정서가 엿보이는 개성적인 거실이 되도록 하려면 우선 방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하고 주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풍으로 꾸밀 것인지가 미리 설정되고 완성하였을 때 어떤 성격이 생겨나야 한다.

인테리어 이미지와 격조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화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공간 디자인에서 부터 가구, 장식소품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